

《東文選》의 編纂 體制와 文體 分類 및 《文選》으로부터의 受容*

諸 海 星**

〈目 次〉

I. 서론	III. 中國古代 文體論의 발전과정에서 본 《文選》
II. 《東文選》의 編纂과 選文標準	IV. 《東文選》 文體 分類의 특성과 《文選》의 영향
1. 책임편찬자 徐居正	
2. 편찬 체제 및 선문표준	V. 결론

I. 서론

필자는 일찍이 대학원에서 中國古代 文體論과 文學理論批評 관련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후, ‘중국고대 문체론의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학위논문을 작성하였다. 그때 중국문학의 대표적 詩文選集¹⁾인 《文選》을 처음 접하였으며, 그 문체 분류 관념 및 실제 분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학위논문에 일부 소개하였다. 또한 2018년 4월 중국 復旦大學에서 열린 ‘中國古代 文章學 국제학술대회’에서 ‘《東文選》의 편찬 체제

* 이 연구는 2018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전공 교수

1) 《文選》, 《文章正宗》, 《古文辭類纂》 등과 같이 역대 詩文을 選錄하면서도 序文이나 跋文에서 그 편찬 체제와 選文標準 및 문체 분류 관련 이론을 제시한 문헌을 중국학계에서는 ‘文章總集’ 또는 줄여서 ‘總集’이라고 한다.

와 문학 가치'를 주제로 한 논문²⁾을 발표하며 한국한문학의 대표적 시문 선집인 《동문선》의 문헌 가치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한차례 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선》은 중국학계에서 역대로 '文選學'이 형성될 정도로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문선》의 편찬과 그 체제 및 시문을 선록하는 표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는 중국문학의 본고장인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반면에 한국한문학의 대표 시문선집인 《동문선》은 역대 문인 학자들이 시문선집으로서의 문헌 가치를 인정하여 주요텍스트로 활용하였으나, 관련된 이론적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1990년대 이후부터 몇몇 학자에 의해서 《동문선》의 해제와 이론 관련 연구논문이 몇 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문선》의 편찬 체제와 시문 선록 표준 및 문체 분류, 그리고 책임편찬자 徐居正의 문학론 등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는 국내학계에서 그 수량과 내용면에서 모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다만 한국한문학 연구 영역에서 金鍾喆 교수가 '《동문선》의 문체 분류의 실상과 성격'을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발표한 몇 편의 관련 논문은 이러한 공백과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시험적 연구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³⁾

- 2) 〈朝鮮詩文選集《東文選》의編纂體例與文學價值〉, 《中國古代文章學論集》 第4輯,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20年 6月 發刊豫定.
- 3) 지금까지 발표된 《동문선》의 편찬과 시문 선록 표준 및 문체 분류 등과 관련이 있는 국내학계의 연구 성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李東歡, 〈《東文選》의 選文方向과 그 意味〉, 《震檀學報》 제56집, 1983, 203-215쪽. 黃義洵, 〈韓國文集의 文體分類 研究 I〉, 《漢文學報》 제5집, 2001, 23-53쪽. 안장리, 〈《東文選》의 選文意識에 나타난 문학의 개념과 가치〉, 《國際語文》 제29호, 2003, 5-33쪽. 金鍾喆, 〈《東文選》 편찬의도와 그 실현양상〉, 《東方漢文學》 제23호, 2002, 71-88쪽. 金鍾喆, 〈《東文選》 文體 分類의 性格〉,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3호, 2003, 263-284쪽. 金鍾喆, 〈《東文選》 文體 分類의 實相과 그 性格〉, 《東洋禮學》 제13집, 2004, 37-48쪽. 배규범, 〈《東文選》 편찬과 수록된 佛家詩文의 의미〉, 《國際語文》 제30호, 2004, 73-110쪽. 안세현, 〈別本 《東文選》의 편찬 과정과 選文 方向 再考〉, 《韓國漢文學研究》 제54호, 2014, 45-84쪽.

현재 국내학계의 중국문학 연구 영역에서 《동문선》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고는 먼저 《동문선》의 책임편찬자 서거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동문선》의 편찬과 그 체제 및 시문 선록 표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문선》이 문체 분류 면에서 《문선》을 위시한 중국의 역대 문장총집이나 시문선집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평가하고, 나아가서 그것들과 다른 자체의 분류 기준이나 분류 방법상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東文選》의 編纂과 選文標準

1. 책임편찬자 徐居正

우리나라 한문학의 독자성을 내세우면서 역대 한문학 작품의 정수를 가려 뽑은 《東文選》을 책임 편찬한 徐居正(1420~1488)은 字가 剛中·子元, 號가 四佳亭·亭亭亭으로 경상북도 達城사람이다. 徐益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戶曹典書 徐義이고, 아버지는 牧使 徐彌性이다. 어머니는 開國功臣 權近의 딸이며, 姊兄이 三政丞을 두루 지낸 勳舊派 대학자 崔恒이다. 6세 때 책을 읽고 문장을 지을 수 있어 세인들이 그를 奇童이라고 불렀다. 趙須·柳方善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博學多識하여 性理學·天文·地理·醫藥·卜筮·風水에까지 두루 정통하였다. 문장에 일가를 이루고, 특히 詩에 능하였다. 世宗 20년(1438) 生員·進士 兩試에 합격하고, 1444년 式年 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여 司宰監直長에 제수되었다. 그 뒤 集賢殿博士·經筵司經이 되었고, 1447년 弘文館副修撰, 知製教 兼 世子右正字로 승진하였다. 1451년 副校理에 올랐고, 1453년 首陽大君을 따라 명나라에 從事官으로 다녀왔다. 1455년 世子右弼善이 되었고, 1456년 집현전이 革罷되자 成均司藝로 옮겼다. 당시 趙孟頫가 쓴 〈赤壁賦〉의 글자를 모아 七言絶句 16首를 지었는데, 詩風이 淸麗하여 이를 본 世祖가 감탄했다고 한다. 1457년 文

科 重試에 丙科로 급제하여 右司諫·知製教가 되었고, 1458년 庭試에서 優等으로 工曹參議·知製教에 올랐다가 곧이어 禮曹參議로 옮겼으며, 御命에 의해 《五行摠括》을 저술하였다. 1460년 吏曹參議로 옮기고, 謝恩使로 명나라에 갔을 때 通州館에서 安南使臣과 詩才를 겨루어 주위를 탄복케 하였으며, 遼東人 丘霽는 서거정의 草稿를 보고 감탄했다고 한다. 1465년 藝文館提學·中樞府同知事를 거쳐, 이듬해 拔英試에 乙科로 급제하여 禮曹參判이 되었다. 이어 登俊試에 3등으로 급제하여 行同知中樞府事에 올랐으며, 《經國大典》의 撰修에도 참가하였다. 1467년 刑曹判書로서 藝文館大提學·成均館知事를 겸해 文衡을 관장했으며, 국가의 典冊과 詞命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1470년 左參贊이 되었고, 1471년 純誠明亮佐理功臣 3등에 錄勳되고 達城君에 봉해졌다. 1474년 다시 君에 봉해지고 좌참찬에 伏拜되었다. 1476년 遠接使가 되어 館伴으로 明의 使臣 祁順·張瑾을 맞이했는데, 詩歌 酬唱을 잘해 祁順의 칭송을 받았다.⁴⁾ 이 해 右贊成에 오르고, 《三國史節要》를 共編했으며, 1477년 都摠管을 겸하였다. 다음 해 大提學을 겸직했고, 곧이어 漢城府判尹에 제수되었다. 이 해 《東文選》 130卷을 新撰하였고, 다음 해 吏曹判書가 되었다. 1480년 《吳子》를 주석하고, 《歷代年表》를 撰進하였다. 1481년 《新撰東國輿地勝覽》 50卷을 찬진하고 兵曹判書가 되었으며, 1483년 左贊成에 제수되었다. 1485년 世子貳師를 겸하며, 《東國通鑑》 57卷을 완성해 바쳤다. 1486년 《筆苑雜記》를 저술하여 史官의 缺落을 보충하였다. 1487년 王世子가 입학하자 博士가 되어 《論語》를 강의했으며, 1488년에 죽었는데 諡號는 文忠이다.

조선 초기 세종에서 성종까지 여섯 왕을 섬겨 45년간 조정에 봉사하며 23년간 文衡을 관장하고 文柄을 장악했던 핵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거정의 학풍과 사상은 15세기 조선 관학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훈신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저술로는 시문집 《四佳集》이 전하며, 공동 찬집한 《三國史節要》·《東國通鑑》·《東國輿地勝覽》·《經國

4) 《成宗實錄》 卷223: (祁順云)如公之才, 求之中朝, 不過二三人耳.

大典》·《東文選》이 있다. 이밖에도 《歷代年表》·《東人詩話》·《太平閑話滑稽傳》·《筆苑雜記》·《東人詩文》 등의 개인저술이 있다.⁵⁾

2. 편찬 체제 및 선문표준

《동문선》은 高句麗(B.C.37~668), 百濟(B.C.18~660), 新羅(B.C.57~935), 高麗(918~1392) 및 朝鮮 成宗年間(1470~1494)까지의 우리나라 고대 辭賦와 詩文작품을 가려 뽑아 엮은 대표적 詩文選集이다. 《동문선》(正編)은 目錄 3卷, 本文 130卷, 총 133卷 45冊으로 성종 9년(1478)에 편찬을 시작하여 1481년 완성하였다. 성종의 勅命을 받들어 외세의 침략으로 散失된 古書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동시에 역대 우수 시문작품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편찬하였다. 集賢殿의 盧思愼·姜希孟·徐居正·梁誠之·崔淑精 등 纂輯官 23명이 편찬 작업에 참가하였지만, 시문작품을 선록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주로 당시 大提學이던 서거정 혼자서 맡아 완성하였다. 뒤에 中宗 13년(1518) 申用漑 등에 의하여 편찬된 《續東文選》(23卷 11冊)은 《동문선》(정편)이 나온 이후 40년간의 시문작품 1,300편을 수록하였다. 肅宗 39년(1713) 宋相琦 등이 보완하여 편찬한 《동문선》(154卷 45冊)은 신라의 金仁問·薛聰·崔致遠을 비롯하여 편찬 당시의 인물까지 약 500명에 달하는 작가의 역대 시문작품 4,302편을 수록하였는데, 기존 《동문선》과 구별하기 위하여 서명을 《新纂東文選》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서 서거정이 책임 편찬한 정편 《동문선》의 문헌 가치가 가장 높다.

《동문선》의 板本은 1478년 乙亥字로 펴낸 初刊本과 1482년 甲寅字로 찍은 再印本이 있다. 연대는 미상이나 壬辰倭亂 이전으로 추측되는 乙亥字本 翻刻本이 전하며, 임진왜란으로 거의 소실되어 光海君 7년(1615) 書籍校印都監에서 再印하였다. 奎章閣에 있는 木版本은 간행시기가 확실하

5)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초판, 韓國學中央研究院, 1991, 659쪽.

지 않으나 이전에 간행되었던 活字本을 대본으로 해서 板刻한 것으로, 지금 규장각 외에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15년 古書刊行會에서 翻印本을 간행하였고, 1966년 慶熙出版社에서 影印本을 내었으며, 1968년 民族文化推進會에서 國譯本을 출간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동문선》은 우리나라 역대 시문작품의 문체를 총망라하여 가급적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선록한 시문작품의 문체가 모두 48종류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는 단 한 편의 작품만 선록되어있는 ‘露布’⁶⁾와 같은 문체도 있어 당시로는 자료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많은 문체의 시문을 선록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작가 또한 乙支文德·崔致遠·金富軾·李仁老·李奎報·李齊賢·李穀·李穡·李詹·鄭道傳·權近 등 《동문선》 편찬 직전까지의 역대 문인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29명의 僧侶와 약간의 無名氏를 포함하여 약 500명에 달하는 작가의 시문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는 단 한 편의 작품만 수록한 작가가 무려 220여명에 이른다. 당시에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더라도 사상이나 예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작가가 창작한 시문작품은 수록하였다. 이는 당시 문헌의 소실로 그들의 작품이 모두 전해지지 않더라도 그들의 창작활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한문학의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인식 아래 한두 편의 작품도 포괄하여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록한 전체 작품 가운데 ‘詩’는 약 25%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6) 중국고대 朝廷公文 문체의 하나인 ‘露布’는 ‘露板(露版)’이라고도 한다. 노포에는 문서를 封緘하지 않고 널리 일반인의 눈에 띄게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원래는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여 놓아주던 일을 널리 알리는 赦令이나 贖令 및 大喪 등을 公布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현존하는 작품이 없어 문체의 실상을 확인하기 어렵다.(蔡邕 《獨斷》) 後漢末에 이르러 馬超가 曹操를 토벌할 때 노포를 지어 사용하면서부터 군사상의 宣戰布告나 檄文을 일러 노포라고 하였다.(任昉 《文章緣起》) 北魏에 이르러 布帛에 글을 써서 장대 위에 걸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戰捷을 널리 알리는 일종의 戰勝文을 노포라고 하였다.(徐師曾 《文體明辨》)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나오는 노포는 《東文選》 49卷에 실린 摠兵官 中書平章事 鄭世雲이 홍건적을 평정한 노포(〈摠兵官鄭世雲平紅賊露布〉)이다. 작자미상(無名氏)이며 勝戰報 성격을 띤 戰勝文이다.

‘文’이다. ‘文’ 가운데에도 詔勅·敎書·制誥·冊文·批答·奏議·劄子 등 政敎와 관계된 문장과 表箋·祝文·疏·道場文 등 儀禮 성격이 강한 문장에 해당되는 작품이 모두 1,130여 편이나 된다. 특히 表箋文만 460여 편이 수록되어 전체 작품수의 10%를 넘는다. 表文과 箋文은 모두 신하가 임금에게 축하나 감사를 올리는 경우나 사양할 경우, 진상할 때에 올리는 儀禮의 성격이 강한 글이다. 대량의 표전문 수록을 통하여 《동문선》의 選文方向이 지배계층의 봉건적 상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통치계층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전형적인 館閣文學⁷⁾의 산물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儒敎國家의 官撰圖書이면서 道場文·齋詞·靑詞 등 道教 및 佛敎와 관계있는 의례 성격이 강한 문장을 195편이나 실고 있다. 이는 당시 지배계층의 통치이념이 철저하게 유교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들 작품 대부분은 駢儷體로 된 화려한 문장이어서 전체적으로 形式美를 추구하고 있다. 승려의 碑銘이나 塔銘, 그리고 불교의 교리를 설파한 元曉가 쓴 佛書의 序文이 승려의 시 82편과 함께 실려 있는 점으로 보아 《동문선》은 시문을 선록하며 작품의 내용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거정을 중심으로 한 編選者의 美意識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慧謚·一然·普愚 등 당대 최고 禪僧들의 禪詩는 거의 실려 있지 않다. 이는 《동문선》이 철저하게 상층 지배계층 중심 작가의 시문을 집중 선록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

《동문선》의 목록 상권 첫머리에는 서거정의 〈東文選序〉와 梁誠之의 〈進東文選箋〉이 실려 있다. 서거정은 序文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시문이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시대 초기에 와서 극성해졌으며, 역대의 빛나는 우리나라 시문이 비록 형식과 내용면에서 중국의 시문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 우리나라

7) 조선시대 때 임금의 辭命이나 事大交隣의 表箋을 전담하는 弘文館·藝文館 등 文學之館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文字行爲를 館閣文學(館閣文 또는 館閣文字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文學’은 文과 學의 두 가지 뜻을 겸유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문학’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글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들 시문을 집대성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⁸⁾ 서거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대 문학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민족정신과 자주의식을 가졌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한국학에 밝은 중국의 중문학자 邵毅平은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하여 “한문학의 영역에서 조선의 고대 문인들이 애써 중국문학을 배우고 모방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또한 자신의 민족주체성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의 한문학일지라도 자신의 특색이 있어야지 중국문학의 완전한 복제품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하여 사람들을 일깨웠다. 이것은 조선한문학을 잉태한 정신풍도가 결국 중국대륙과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자신의 특색은 인정받고 긍정되어야지 함부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특히 조선왕조시기에 이러한 의론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⁹⁾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였다.

서거정은 서문에서 또한 “글의 이치가 醇正하고 治教에 도움이 되는 辭賦와 詩文을 가려 뽑아 각 문체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¹⁰⁾고 《동문선》의 시문 선록 표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문선》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자 成俔은 “《동문선》은 (詩文을) 類聚한 것이지 精選한 것이 아니다.”¹¹⁾라고 저평가하였고, 李睟光도 “《동문선》의 문장 선

8) <東文選序>: 皇明混一, 光岳氣全. 我國家列聖相承, 涵養百年. 人物之生於其間, 磅礴精粹. 作爲文章, 動蕩發越者, 亦無讓於古. 是則我東方之文, 非宋元之文, 亦非漢唐之文, 而乃我國之文也. 宜與歷代之文並行於天地間, 胡可泯焉而無傳也哉! 奈何金台鉉作《文鑑》, 失之疏略; 崔濯著《東人文》, 散逸尚多. 豈不爲文獻之一大概也哉!

9) 邵毅平著, 《地緣文化的命運與挑戰——韓國的智慧》, 台北, 林鬱文化事業公司, 2000, 200-201頁: 即使在漢文學領域裏, 朝鮮的一些古代文人也在努力學習和模倣的同時, 並未忘記自己的民族主體性. 他們一再提醒人們, 即使是朝鮮的漢文學, 也應有自己的特點, 而不應是中國文學完全的複製品. 這是因爲孕育朝鮮漢文學的精神風度畢竟不同於中國大陸之故. 而且, 這種自己的特點應該受到承認和肯定, 而不應該妄自菲薄. 尤其是在朝鮮王朝時期, 此類議論出現得最多.

10) <東文選序>: 臣等仰承隆委, 採自三國, 至于當代. 辭賦詩文摠若干體, 取其詞理醇正·有補治教者, 分門類聚, 釐爲一百三十卷, 編成以進, 賜名曰《東文選》.

11) 成俔, 《慵齋叢話》卷10: 是乃類聚, 非選也.

록 범위는 넓으나 책임 편선자의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 取捨되었다.”¹²⁾ 고 선문의 불공평성을 비평하였다. 당시 몇몇 문인 학자의 이러한 譏評은 정치적인 안정에 만족하는 지배계층의 官學的 분위기 속에서 편찬된 《동문선》의 성격을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동문선》에 수록된 우리나라 역대의 풍부한 문학유산을 통하여 당시 문학작품의 수준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크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역대 시문작품을 집대성하였다는 문학적 가치와 함께 우리한문학을 중국문학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 독자적인 전통유산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그 편찬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中國古代 文體論의 발전과정에서 본 《文選》

文體의 개념을 명확하게 定義하는 것은 中國文學理論批評史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문학과 한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體’ 또는 ‘文體’는 대체로 ‘style’과 ‘genre’¹³⁾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체’ 또는 ‘문체’가 갖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확실히 구별하지 않거나 때로는 구별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사용하다보니 중국학자들도 일찍이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다. 문체의 정의에 관해서 明代 徐師曾은 宮室에서 사용하는 器皿도 각기 體式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 문장을 짓는 데는 반드시 體裁와 樣式을 확정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하였다.¹⁴⁾ 明代 吳訥도 문장은 체제가 우선이며 정교하게

12) 李睟光, 《芝峯類說》 卷7(經書部三): 雖《東文選》博矣, 而主選者多以愛憎爲取捨.

13) 라틴어에 어원을 둔 프랑스어 ‘genre’는 원래 ‘類型’을 의미하지만 뒤에 ‘文藝樣式의 갈래’, 특히 문학에서는 ‘抒情, 敘事, 劇 또는 詩, 小說, 戲曲, 隨筆, 評論 등의 갈래’를 가리킨다.

꾸미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하여 문장의 體裁와 體式을 강조하였다.¹⁵⁾ 현대에 와서 羅根澤은 ‘문체’에는 ‘體派의 體’와 ‘體類의 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자는 ‘문학의 作風(style)’이고 후자는 ‘문학의 類別(literary kinds)’이라고 구분하여 설명하였다.¹⁶⁾ 劉麟生은 ‘문체’를 모든 ‘문장의 체제’이며 ‘문학의 분류’라고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¹⁷⁾ 周勳初도 ‘문체’를 ‘風格’과 ‘體裁’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¹⁸⁾ 그러나 褚斌傑은 ‘문체’를 단순히 ‘문학의 體制, 體裁 또는 樣式’이라고만 설명함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엄격하게 따로 구별하여 정의하지 않았다.¹⁹⁾ 반면에 李曰剛은 ‘體’를 ‘풍격(style)’의 의미로만 쓰고 ‘갈래(genre)’의 의미는 ‘文類’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체’와 ‘문체’가 갖는 의미의 혼란을 막으려고 하였다.²⁰⁾ 王更生 교수도 ‘문체’를 ‘體裁, 體類(文類)’와 ‘體制, 風格’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李曰剛의 견해를 대체로 따르고 있다.²¹⁾ 국내학계에서도 彭鐵浩 교수가 李曰剛의 견

14) 《文體明辨·序說》: 夫文章之有體裁, 猶宮室之有制度, 器皿之有法式也。爲堂必敞, 爲室必奧, 爲台必四方而高, 爲樓必陝而修曲(『爾雅』: 陝與狹通), 爲宮必圓, 爲籩必方, 爲簠必外方而內圓, 爲簋必外圓而內方, 夫固各有當也。苟舍制度法式, 而率意爲之, 其不見笑於識者鮮矣, 況文章乎?

15) 《文章辨體·序說》: 文章以體製爲先, 精工次之。失其體製, 雖浮聲切響, 抽黃對白, 極其精工, 不可謂之文矣。

16) 羅根澤, 《魏晉六朝文學批評史》,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66, 24頁: 中國所謂文體, 有兩種不同的意義。一是體派之體, 指文學的作風(Style)而言, 如元和體、西崑體、李長吉體、李義山體……皆是也。二是體類之體, 指文學的類別(Literary Kinds)而言, 如詩體、賦體、論體、序體……皆是也。

17) 劉麟生, 《中國文學概論》,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13頁: 所謂文體, 就是一切文章的體裁。換言之, 便是文學的分類。然而文學的分類, 與文體的分類, 不免小有出入。前者是兼形式與功用而言; 後者偏重形式, 不免狹義一點。

18) 周勳初, 《中國文學批評小史》, 台北, 崑高書社, 1985, 88頁: 文體一名, 有時用來指風格, 而在一般情況下, 則指的是體裁。

19) 褚斌傑,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4, 1頁: 文體, 指文學的體裁、體制或樣式。

20) 李曰剛, 《文心雕龍輯註》, 台北, 國立編譯館中華叢書, 1982, 1160-1164頁。

21) 王更生, 《中國文學的本源》, 台北, 臺灣學生書局, 1988, 91頁: 爲文之法, 首在辨體, ‘體’之用於文學, 大別有兩種意義, 一指體裁, 一指體式。體裁今人又名體類, 體式又叫體制, 今人謂之風格。

해를 참고하여 중국고전문학에서 사용하는 ‘문체’의 개념을 ‘풍격’과 ‘갈래’의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²²⁾

이상의 여러 견해를 종합해보면, 중국문학과 한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體’ 또는 ‘文體’는 일반적으로 ‘문장(문학작품)의 體裁, 體制, 樣式, 風格’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style’과 ‘문장(문학작품)의 類別, 體類(文類), 分類, 갈래’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genre’의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문체’라는 용어는 때로는 단순히 ‘문장(문학작품)의 체재, 체제, 양식, 풍격’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이지만, 대부분 ‘문장(문학작품)의 형식과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분류한 갈래’ 즉 ‘장르(類別, 體類, 文類)’를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문체 분류(Genre classification)’라는 용어 또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문체를 공통되는 성질과 특징 및 기능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국의 역대 문학작품은 그 수량이 상당히 많고 형식상의 체재와 양식도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차이는 더 크다. 중국문학의 발생과 발전 및 변천과정에서 문체의 발생과 변화는 필수적 현상이다. 그래서 중국문학의 문체와 그 분류 현상에 관한 연구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분야이다. 중국고대의 문인 학자들은 일찍부터 서로 다른 문체의 서로 다른 성질과 특징 및 기능을 인식하고 주의해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성질과 특징 및 기능에 근거하여 문학작품의 체재와 장르를 다시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 분류 방법 및 이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중국문학이론 연구의 중요한 한 분야인 ‘文體論’이 생겨났다.

중국고대 문체론은 일반적으로 東漢 蔡邕의 《獨斷》에 나타난 당시 朝廷公文에 대한 분류 및 논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²³⁾ 뒤이어서 魏文帝 曹丕의 《典論·論文》, 西晉 陸機의 《文賦》, 摯虞의 《文章流別(志)論》,

22) 彭鐵浩, 《中國古典文學風格論》, 서울, 사람과 책, 2001, 147-148쪽.

23) 관련 내용은 拙稿 〈蔡邕 《獨斷》에 나타난 朝廷公文의 分類와 文體特徵〉(《中國語文論叢》 제63집, 2014.)을 참고할 수 있다.

梁任昉의 《文章緣起》 등에 나타난 당시 문체 분류 및 이론에 대한 부분적 논술을 거쳐, 梁劉勰의 《文心雕龍》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이론의 기본체계가 확립되었다. 그 후에 梁昭明太子蕭統이 劉孝威 등 高齋十學士와 공동 편찬한 《文選》, 北宋李昉 등이 太宗의 칙명에 의해 편찬한 《文苑英華》, 姚鉉이 편찬한 《唐文粹》, 南宋眞德秀가 편찬한 《文章正宗》, 明代吳訥이 편찬한 《文章辨體》, 徐師曾이 편찬한 《文體明辨》 등으로 이어지는 역대 文章總集에 나타난 문체 분류 및 이론의 발전시기를 거쳐, 清代에 이르러서 姚鼐의 《古文辭類纂》과 曾國藩의 《經史百家雜鈔》에 의해 문체 분류 및 이론이 체계화, 정형화되었다.

중국고대 문체론의 발전과정에서 《文選》은 단순히 역대 시문을 선록한 시문선집이 아니라 책의 서문을 통하여 그 편찬 체제와 선문표준 및 문체 분류 관련 이론을 제시한 문장총집이다. 《문선》은 唐代에 와서 과거시험에서 進士科가 중시되면서 문인들이 여기에 수록된 시문을 학습하는 열풍인 ‘選學’이 거세게 일어나, 당시 독서인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문선》은 우리나라 문인들의 개인문집 편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동문선》의 편찬 전반에 걸쳐 기본규범으로 작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중국문학사와 중국문헌학사의 측면에서 보면, 《문선》은 중국고대 문체론의 심화 발전과 후대 문장총집과 선집의 편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헌을 한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선》의 영향을 받은 문장총집 중에서 특히 眞德秀가 편찬한 《문장정종》은 선록한 모든 문장을 ‘辭命·議論·敘事·詩賦’의 네 갈래로 나누었는데, 그 이전의 다른 어떤 문장총집이나 선집보다 편찬 체제와 선문표준이 엄정하고 독특하며, 그에 따른 문체 분류 방법 및 이론이 대담하고 창의적이다.²⁴⁾ 그러나 朱熹, 張栻 등 義理를 강조하는 南宋 道學者들의 문학관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진덕수는 실질적으로 문학의 가치를 부정하고, 문학의 심미기능과 예술생명력을 없애버렸다는 혹평을 받기도 한다.²⁵⁾ 이처럼 독특하고

24) 관련 내용은 拙稿 <《文章正宗》의 編纂體制와 眞德秀 文體論의 獨創性 研究>(《中國語文學誌》 제59집, 2016.)를 참고할 수 있다.

창의적인 문체 분류 방법에 의거하여 문장을 선록한 《문장정중》은 《문선》과는 달리, 《동문선》의 편찬과 문장 선록 표준 및 문체 분류 방법 등에서 상호 영향성이나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IV. 《東文選》 文體 分類의 특성과 《文選》의 영향

《동문선》의 목록(3권)을 통하여 본문(130권)에 수록된 전체 詩文의 문체를 살펴보면, 권1-3은 辭·賦, 권4-22는 詩(권4-5 五言古詩, 권6-8 七言古詩, 권9-10 五言律詩, 권11 五言排律, 권12-17 七言律詩, 권18 七言排律, 권19-22 五言絶句·七言絶句·六言絶句), 권23-30은 詔勅·敎書·制誥·册(文)·批答, 권31-45는 表箋, 권46-48은 啓·狀, 권49-51은 露布·檄書·箴·銘·頌·贊, 권52-56은 奏議·劄子·(雜)文, 권57-63은 書(牘), 권64-95는 記·序, 권96-98은 說, 권99는 論, 권100-101은 傳, 권102-103은 跋, 권104는 致語, 권105는 辯·對·志·原, 권106은 牒·議, 권107은 雜著, 권108은 策題·上梁文, 권109-113은 祭文·祝文·疏(文), 권114는 道場文·齋詞, 권115는 靑詞, 권116-121은 哀詞·誄·行狀·碑銘, 권122-130은 墓誌이다. 총 48종류의 기본 문체는 《문선》의 37~39종류²⁶⁾보다도 많고 다양

25) 袁行霽, 《中國文學史》,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2, 198頁: 趨於極端的理學家的文學觀, 它完全抹煞了文學的審美功能.

26) 《문선》에 선록되어 있는 문체를 학자에 따라서는 37~39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명·청대 이래로 전래되어온 《문선》의 주요 판본 대부분이 37종으로 문체를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통 《문선》의 문체를 37종으로 보았다. 청대 胡克家是 《文選考異》 권8 〈移書讓太常博士〉 부분에서 제목 앞에 문체 분류 항목인 ‘移’가 탈락되었으며, ‘書’ 부분에서 〈移書太常博士〉와 〈北山移文〉 두 편을 독립시켜 ‘移’ 문체를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선》의 문체를 38종으로 간주하였다. 대만의 游志誠 등 일부 학자는 현존 최고 ‘五臣本’인 ‘陳八郎本’에 근거하여 《문선》 권44의 ‘檄’ 부분에 수록된 5편의 문장 중에서 司馬長卿의 〈難蜀父老〉도 ‘檄’에서 독립된 문체 ‘難’으로 따로 설정하게 되면 《문선》의 문체가 39종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영문 등 5인 공역, 《문선역주》 (1), 서울, 소명출판, 2010, 19-21쪽 참조.

하며, 1518년 申用漑 등이 편찬한 《속동문선》의 37종류보다도 11종류나 많다.

48종류의 문체로 나누어 수록한 《동문선》의 시문작품 가운데 辭賦와 詩를 제외하면,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일정한 대상에게 써준 문장, 고정 대상이 없거나 작자가 자신의 의도에 근거하여 쓴 문장, 특정한 일과 활동을 위해 쓴 문장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정한 대상에게 써준 시문은 왕이 大臣에게 써준 문장과 대신이 왕에게 上奏한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의 대부분은 신하가 왕을 대신하여 쓴 것이다. 이밖에도 官吏 상호간 또는 백성들에게 써준 公務와 私信의 문장도 있다. 특정한 일과 활동을 위해 쓴 문장은 원래 시(詩歌)가 위주였으나, 문장의 배경이나 詩序 중에 상관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散文)에 수록할 수도 있다. 작자의 개인 의도에 근거하여 쓴 문장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의 경과와 자신 또는 타인의 시문과 저작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문장, 어떤 관점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연유를 탐구한 문장, 그리고 人物傳記 등이다. 이러한 문장이 《동문선》 편찬자가 조선 초기에 제출한 산문의 모범유형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金時習이 지은 《金鰲新話》와 같은 최초의 漢文傳奇小說이 이미 출현했기에 이 48종류의 문체로써 전체 문학작품을 개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小說과 野談·說話 등 虛構文學 및 여행기록 등 기행문(遊記)의 대량 출현은 《동문선》이 분류한 문장의 문체 범위를 완전히 초월하였다.²⁷⁾ 이러한 현상은 《동문선》의 문체 분류가 갖는 시대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볼 때, 중국고대에는 東漢 이래로 ‘文’과 ‘筆’의 문체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문체를 분류하고 변별하는데 있어서 진일보한 발전이다. 劉勰의 《文心雕龍》부터 중국고대의 문체와 그 분류 방법을 연구한 역대 문체론 관련 저작은 대부분 문체를 ‘문’과 ‘필’로 二分하였다. ‘문’과 ‘필’은 주로 작품의 언어특징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으로, 각종 문체의 작품을 그

27) 趙東一等 7人 共著(周彪·劉鈞擴 譯), 《韓國文學論綱》, 北京大學出版社, 2003, 113頁.

언어의 운율 유무에 따라서 ‘有韻之文(韻文)’과 ‘無韻之筆(散文)’로 나눈다. 이는 《문선》에서 특히 주의한 ‘純文學’과 ‘非 純文學’의 구분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唐·宋代 이후 문인 학자들의 문장 선록은 주로 古文에만 치중하거나 아니면 駢文이나 韻文에 치중하는데, 이로 인하여 전면적인 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학작품과 비문학작품을 구분하지 않았다. 중국고대 문인 학자들은 그들이 견지한 전통적 문학 관념에 따라서 소설과 희곡 및 기타 통속문학작품을 문학 이외로 간주하여 배척함으로써 문체 분류 방법의 진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시대와 전통 문학 관념의 한계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당시 문인 학자들에게 문체 분류의 과학성이 결여되어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동문선》 문체 분류의 특성과 《문선》으로부터의 수용 및 영향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문선》과 《동문선》의 편찬 체제와 문체 분류 방법 등을 비교하여 파악한 두 문헌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소통은 《문선》을 책임편찬하며 먼저 經·史·子部의 문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건을 기록한 사서와 편년체 서적은 시비를 포괄하고 다르고 같은 것을 기록하여 구별 짓기 때문에 아름다운 수식을 한 문장에 견주어보면 이미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논찬에 아름다운 문체가 모여 있고 서술에 화려한 문사가 새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담긴 내용이 깊이 있는 사색에서 나왔고, 의미는 아름다운 수사로 귀결되기 때문에 다른 아름다운 문장과 함께 섞여서 편집하였다.”²⁸⁾고 설명하며 “깊이 있는 내용과 아름다운 수사 형식의 조화를 이룬(沈思翰藻)” 시문에 한정하여 작품을 선록하였다. 내용과 수사 형식의 조화를 문학의 특성으로 인식한 소통은 문장이 華美하고 聲律을 중시하는 楚辭와 漢賦 및 六朝 이래의 駢文을 집중 선록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학 관념에 따라서 초사의 작품명인 ‘騷’를 독립된 문체명칭으로 제시하였다. 《문선》은 屈原의 〈離騷〉 이후 梁代까지

28) 〈文選序〉: 至於記事之史, 繫年之書, 所以褒貶是非, 紀別異同, 方之篇翰, 亦已不同. 若其讚論之綜緝辭采, 序述之錯比文華, 事出於沈思, 義歸乎翰藻, 故與夫篇什, 雜而集之.

유행하던 130여 명의 시문 500여 편을 전체 37~39종류의 문체로 분류하고, 첫머리에 賦를 14개의 하위 갈래(子類, 子目)로 나누어 실고, 이어서 詩를 23개의 하위 갈래로 나누어 실었다. 그 다음에는 騷와 七 등 騷體賦를 실고, 이어서 駢文과 散文을 33개의 갈래로 나누어 문장을 수록하는 등 세부 문체별로 편집하였다. 《문선》은 먼저 문체명칭을 제시하고 다시 하부 갈래로 분류한 후 작가의 시대 선후 순서에 따라서 시문작품을 선록하였다. 賦와 詩의 분류에서는 각각 하부 갈래의 細目을 제시하고 작품을 선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문체에서는 바로 작품을 선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동문선》은 《문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분류한 48종류의 문체 순서에 따라서 시문작품을 선록하였다. 문체 분류와 순서에 따라 편집하는 방식(編次)은 주로 《문선》을 대표로 하는 《唐文粹》·《宋文鑑》·《元文類》 등 중국의 역대 문장총집을 본받았다고 서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²⁹⁾ 宋代 姚鉉이 편찬한 《당문수》 100권은 《문선》을 본보기로 하여 당대 시문을 22종류의 문체로 분류하여 선록하였고, 그 중 17종류는 다시 316개의 하부 갈래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하부 갈래는 대체로 주제나 소재 등에 따른 분류여서 번잡하기만 할뿐 문체론적 의미가 거의 없다. 南宋 孝宗의 勅命으로 呂祖謙이 책임 편찬한 《송문감》 150권은 기존의 문체 분류를 참고하여 송대 시문을 61종류의 문체로 분류하여 선록하였는데, 분류의 기준과 명칭이 잡다할 뿐만 아니라 편차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는 편이다. 元代 蘇天爵이 《당문수》와 《송문감》의 前例를 따라서 편찬한 《원문류》 70권은 원대 시문을 43종류의 문체로 분류하여 선록하였다. 《동문선》은 이러한 중국 문장총집의 문체 분류와 편차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창작과 비평 실정에 맞게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편찬 체제를 수립하고 문체를 분류한 후 해당 시문작

29) 〈東文選序〉: 讀典·謨, 知唐虞之文, 讀訓·誥·誓·命, 知三代之文. 秦而漢, 漢而魏晉, 魏晉而隋唐, 隋唐而宋元, 論其世, 考其文, 則以《文選》·《(唐)文粹》·《(宋)文鑑》·《(元)文類》諸編, 而亦概論後世文運之上下者矣.

품을 선록하였다.

《동문선》은 문체를 辭·賦 → 詩 → 奏議類 駢文: 詔勅·教書·制誥·冊(文)·批答·表箋·啓·狀·露布·檄書·箴·銘·頌·贊·奏議·劄子 → 散文: (雜)文·書(牘)·記·序·說·論·傳·跋·致語·辯·對·志·原·牒·議·雜著·策題 → 有韻文: 上梁文·祭文·祝文·疏(文)·道場文·齋詞·青詞·哀詞·誄·行狀·碑銘·墓誌 순서로 제시한 후에 바로 그 문체에 해당하는 시문작품을 작가의 시대 선후 순서에 따라서 선록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문체의 설정과 분류 및 작품 선록과정에서 ‘문장에 근거하여 문체를 설정(因文而立體)’하고 ‘문체에 의거하여 문장을 선록(因體而錄文)’하는 방법으로 작가의 시대 선후 순서에 따라서 해당 시문작품을 선록하였다. 이는 《문선》에서부터 시도한 중국고대 문장총집의 전통적인 편찬규범, 즉 “문장의 차례를 배열하는 순서는 각각 같은 문체끼리 모았지만, 詩와 賦는 체제가 한결같지 않아 다시 종류별로 나누고, 종류별로 나눈 작품 속에서는 각각 시대에 따라서 서로 차례를 정한다.”³⁰⁾라는 규범을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문선》의 편찬자는 설정한 문체의 하부 갈래 분류를 하지 않고, 문체론과 관련한 설명도 하지 않고서 선록한 시문작품을 통하여 다양한 문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체를 분류하여 작품을 선록하면 대량의 시문작품을 편성하고 배열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편찬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정 문체의 작품을 가려서 수록할 수 있다. 《동문선》의 편찬자가 채용한 이러한 문체 분류 방식은 문체론과 문체 분류가 일차적 목적이 아니라 문장 선록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문체를 분류하기 위하여 문장을 선록한 것이 아니라, 선록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체명칭을 단순 나열하는 문체 분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문선》의 이러한 문체 설정과 분류 및 선문 방법은 조선 중후기에 편찬된 시문선집의 문체 분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조선조 문체 분류 체계의 典型이

30) 〈文選序〉: 凡次文之體, 各以彙聚. 詩賦體既不一, 又以類分. 類分之中, 各以時代相次.

되었다.³¹⁾

요컨대, 《동문선》은 서문에서 《문선》처럼 명확한 선문표준과 문체론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선록한 시문작품을 통하여 편찬자의 선문의식과 문체 분류 관념을 드러내었고, 위에서 설명한 문체 분류 방식으로 우리나라 역대 시문작품의 다양한 형식과 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동문선》이 《문선》을 위시한 중국 역대 문장총집의 편찬규범과 체제를 본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예적 개성을 바탕으로 한 문학 관념이나 문체 분류와 선문표준을 바탕으로 한 중국전통 문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다만 선집의 편차와 문체 설정 및 작품 선록 방법 등에서 그들의 우수성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문선》은 문체를 분류하는 기준과 작품을 선록하는 원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동문선》은 문학의 전통적 二分法인 詩와 文의 분류에서 벗어나 辭와 賦를 별도 문체로 설정함으로써 편찬자의 진보적 분류의식을 보여주었다. 《동문선》은 辭賦를 ‘사’와 ‘부’ 두 종류로 나누고 ‘사 → 부’의 순서로 해당 작품을 선록하였다. 司馬遷의 《史記·司馬相如列傳》에서 “한 경제는 사부를 좋아하지 않았다.(景帝不好辭賦.)”라는 기록과 班固의 《漢書·賈誼傳》에서 屈原을 논하며 “참소를 당해 (조정에서) 쫓겨나고 <이소부>를 지었다.(被讒放逐, 作<離騷賦>.)”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중국고대에는 사와 부를 거의 동등하게 간주하였다. 이러한 ‘辭賦一體’의 주장은 후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실제로 사와 부는 서로 다른 문체이다. 魏晉 이래로 문체를 논한 문인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변별한 바가 있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楚辭의 지위를 존중하여 <辨騷>편을 따로 설정함으로써 <離騷>와 賦(<詮賦>편)를 구분하여 논술하였고, 소통은 《문선》에서 ‘賦’체 이외에 ‘騷’체를 별도로 나누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의식적으로 ‘辭’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뒤 《唐文粹》·

31) 金鍾喆, <<東文選>> 文體 分類의 性格,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3호, 2003, 269-270쪽.

《文苑英華》·《宋文鑑》·《元文類》 등 역대 문장총집의 편찬은 《문선》의 전통을 좇아 모두 ‘騷’ 아래 ‘사’체와 ‘부’체의 작품을 선록하였다. 하지만 《동문선》은 ‘사’체 성질의 작품은 명확하게 ‘사’라는 문체명칭을 사용하여 선록하였다. 만약 서거정 등 편찬자가 漢代 이래 사·부 두 문체명칭을 혼용하여 작품을 선록하는 중국 역대 문장총집의 부당한 문체 분류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이 두 문체를 나누었다면 이는 매우 식견이 높은 분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동문선》의 ‘詩’체는 詩句의 字數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록한 시가작품을 五言古詩, 七言古詩, 五言律詩, 五言排律, 七言律詩, 七言排律, 五言絶句, 七言絶句, 六言詩 등 총 9개의 하부 갈래로 세분하였다. 詞牌에 歌詞를 붙인 長短句 ‘詞’를 詩에 포함시켜 분류한 점과 古體詩와 近體詩를 뒤섞어놓아 혼동하게 한 점을 제외하고는 분류상의 오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서거정은 서문에서 《문선》·《당문수》·《송문감》·《원문류》 등 중국 역대 문장총집과 《東國文鑑》·《東人之文》 등 조선 초기 시문선집의 영향을 받아 《동문선》을 편찬하였음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시’체의 하위 갈래 분류와 해당 시가작품을 선록할 때, 이 문장총집과 시문선집들이 《동문선》에게 직접적인 편찬규범을 제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서거정 등 편찬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중국 역대 시집이나 문집을 두루 참고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동문선》은 중국의 역대 문장총집이나 시문선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부 갈래의 문체명칭을 제시하였다. 책임편찬자 서거정은 신라 崔致遠의 시문집 《桂苑筆耕集》에서 ‘別紙’類와 ‘委曲’類 작품을 채택하여 수록하였다. 수록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곡’은 ‘별지’와 마찬가지로 書信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서로 다른 점은 ‘별지’는 대다수가 私信(個人書牘) 성질이지만, ‘위곡’은 지령을 전달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의도로 많이 쓰이며 公私 구분 없이 사용되는 문체이다. 《동문선》의 편찬자가 참고한 중국의 문장총집이나 시문선집에서는 이러한 하부 갈래의 문체명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동문선》의 편찬자가 최치원의 ‘위곡’류와 ‘별지’류

작품을 선록할 때, 그 문체의 속성과 특성을 변별하여 어떤 문체에 넣을지를 확인한 후에 이들 작품을 모두 ‘書’체에 편입하였다. 이러한 문체 분류는 서거정 등 편찬자가 이 두 하부 갈래 문체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상부 문체에 편입함으로써 가능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역대 문장총집의 전통적인 문체 분류 방법을 본받고 존중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넷째, 《동문선》은 우리나라 역대 시문작품을 선록하면서 생존 작가의 시문작품을 아예 수록하지 않았다. 《동문선》에 수록된 시문작품 중에서 창작 연대가 가장 이른 것은 무명씨의 〈百濟上魏主請伐高句麗表〉이다. 이 표문은 백제 蓋鹵王 18년(472) 위나라에 파견한 이름을 모르는 한 사신이 지은 것이다. 반면에 창작 연대가 가장 늦은 것은 조선 성종 8년(1477)에 죽은 李石亨의 〈呼耶歌〉 등 몇몇 작품이다. 즉 선록한 마지막 작가가 《동문선》이 완성되기 4년 전에 죽은 인물이다. 《동문선》 편찬자가 당대 작가의 시문작품을 선록하며 생존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문선》 등 중국의 문장총집이 역대로 해왔던 편찬 常例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서거정은 우리나라 한문학의 독자성을 내세우면서 역대 시문작품의 정수를 가려 뽑아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그는 역대의 우리나라 시문이 비록 형식과 내용 면에서 중국 시문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 우리나라의 글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집대성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여야 할 필요성과 우수한 문학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민족정신과 자주의식을 갖고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수록된 품

32) 陳舜秋, 〈論中國選本對朝鮮《東文選》文體分類與編排的影響〉,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2010, 133-135頁.

부한 문학유산을 통하여 당시 문학작품의 수준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문선》이 갖는 문화적 가치는 자못 크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역대 시문작품을 집대성하였다는 문학적 가치와 함께 한문학을 중국문학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 독자적인 전통유산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그 편찬의의는 더욱 크다.

《동문선》의 편찬자는 설정한 문체의 하부 갈래 분류를 따로 하지 않고, 문체론과 관련된 설명도 전혀 없이 선록한 시문작품을 통하여 48종의 다양한 문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문체를 분류하여 작품을 선록하면 대량의 시문작품을 편성하고 배열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찬자 개인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정 문체의 작품을 가려서 수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체 분류 방식은 문체론과 문체 분류가 일차적 목적이 아니라 문장 선록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문체를 분류하기 위하여 문장을 선록한 것이 아니라 선록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체명칭을 단순 나열하는 문체 분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문선》은 《문선》처럼 명확한 선문표준과 문체론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선록한 시문작품을 통하여 편찬자의 선문의식과 문체 분류 관념을 드러내었고, 이러한 분류 방식으로 우리나라 역대 시문작품의 다양한 형식과 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동문선》이 《문선》 등 중국 역대 문장총집의 편찬 체제를 본받았지만, 문예적 개성을 바탕으로 한 문학관념이나 문체 분류와 선문표준을 바탕으로 한 문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선집의 편차와 문체 설정 및 작품 선록 방법 등에서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문선》은 문체 분류 기준과 작품 선록 원칙 면에서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문학의 전통적 이분법인 시와 문의 분류에서 벗어나 辭와 賦를 별도 문체로 설정함으로써 편찬자의 진보적 분류의식을 보여주었다. 둘째, ‘시’체는 시구의 자수를 기준으로 삼아 선록한 작품을

하부 갈래로 세분하였다. 장단구 ‘詞’를 시에 포함시켜 분류한 점과 고체 시와 근체시를 뒤섞어놓아 혼동하게 한 점을 제외하고는 분류상의 오류가 매우 적다. 셋째, 중국의 문장총집이나 선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別紙’와 ‘委曲’같은 하부 갈래의 문체명칭을 제시하면서도 중국의 전통적인 분류 원칙을 본받아 ‘書’체에 편입하였다. 넷째, 역대 시문작품을 선록하면서 생존 작가의 시문작품을 수록하지 않았다. 작가 및 작품을 선록하며 생존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중국 역대 문장총집의 편찬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국문학의 일환으로 한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대 시문선집으로서의 《동문선》이 지니는 그 본래의 문헌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동문선》이 중국 역대 문장총집과 시문선집 및 개별 문인의 시문집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문학적 가치와 특성 및 문제점을 찾아내어 객관적으로 비평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영문 등 5인 공역, 《문선역주》(1~9), 서울, 소명출판, 2010.
- 金鍾喆, <《東文選》 文體 分類의 性格>,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3호, 2003.
- 金鍾喆, <《東文選》 文體 分類의 實相과 그 性格>, 《東洋禮學》 제13집, 2004.
- 徐居正 等撰, 《東文選》(朝鮮刻本), 啓明大學校圖書館古文獻室所藏本.
- 徐居正 等撰, 《東文選》(朝鮮刻本縮印本), 서울, 太學社, 1975.
- 徐居正 等撰, 《東文選》(標點排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4.
- 李東歡, <《東文選》의 選文方向과 그 의미>, 《震檀學報》 제56집, 1983.

- 諸海星, 〈蔡邕 《獨斷》에 나타난 朝廷公文의 分類와 文體特徵〉, 《中國語文論叢》 제63집, 2014.
- 諸海星, 〈《文章正宗》의 編纂體制와 眞德秀 文論體의 獨創性 研究〉, 《中國語文學誌》 제59집, 2017.
- 黃義洵, 〈韓國 文集의 文體分類 研究 I〉, 《漢文學報》 제5집, 2001.
-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초판, 韓國學中央研究院, 1991.
- 蔡邕 撰, 《獨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影印本, 1990.
- 陳彝秋, 〈徐居正與《東文選》〉, 《古典文學知識》 第6期, 2008.
- 陳彝秋, 〈論中國選本對朝鮮《東文選》文體分類與編排的影響〉, 《南京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2010.
- 郭英德 著, 《中國古代文體學論稿》,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林聰明 著, 《昭明文選研究》(初稿), 台北, 文史哲出版社, 1986.
- 劉勰 撰(范文瀾 註), 《文心雕龍註》, 香港, 商務印書館, 1960.
- 劉勰 撰(王更生 註譯), 《文心雕龍讀本》, 台北, 文史哲出版社, 1985.
- 馬建智 著, 《中國古代文體分類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 任昉 撰(陳懋仁 註), 《文章緣起註》, 台北, 廣文書局影印本, 1970.
- 邵毅平 著, 《地緣文化的命運與挑戰——韓國的智慧》, 台北, 林鬱文化事業公司, 2000.
- 吳承學 著, 《中國古代文體學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1.
- 吳訥 撰(于北山 校點), 《文章辨體序說》, 香港, 太平書局, 1965.
- 蕭統 撰(李善 注), 《文選》(附考異),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1977.
- 徐召勳, 〈評蕭統的文體分類思想〉, 《安徽大學學報》 第4期, 1984.
- 徐師曾 撰(羅根澤 校點), 《文體明辨序說》, 香港, 太平書局, 1965.
- 眞德秀 撰, 《文章正宗》, 文淵閣四庫全書影印本, 臺灣商務印書館.

< Abstract >

Dong Mun Seon (東文選) not only contains a large number of Korean ancient literature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Koryo(高麗) Dynasty and its previous period of poetry and prose works, but also helps to study the literary styles and genres and their developm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 ancient Korea. *Dong Mun Seon* is a collection of selected poetry and prose works according to the style of articles. It divides the ancient poetry and prose works of Korea into 48 styles. Its genre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method are mainly influenced by the collection of articles in Chinese history represented by *Wen Xuan* (文選). The genre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method of *Dong Mun Seon* is generally similar to that of Chinese anthologies, which undoubtedly comes from the affirmation and acceptance of the compilation style of these Chinese anthologies by the editors of *Dong Mun Seon*. *Dong Mun Seon* classifies all kinds of selected poetry and prose, and collects works in a certain order. Such classification and collection is beneficial to the actual arrangement of a large number of poetry and prose works, and can fully reflect the editors' deep understanding of genre classification. Generally speaking, the genre classification of *Dong Mun Seon* is influenced by the collection of traditional Chinese articles and its genre theory, and has its own unique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His anthology accepted the traditional compilation method of "set up the genre according to the text(因文而立體)" represented by the anthology of *Wen Xuan*, and the genre classification of ancient Korean poetry and prose was generally based on the actual creation of domestic writers. 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a situation of "recording the text according to the style(因

體而錄文” in the selection of *Dong Mun Seon*.

Key Words : 서거정(Seo Geo-jeong), 《동문선》(*Dong Mun Seon*), 편찬 체제(Compiling style), 선문표준(Selection criteria), 문체 분류 (Genre classification), 《문선》(*Wen Xuan*), 수용(Acceptance)

